



미 증시, MS 사상 최고치 등 기술주 강세에 상승 마감

미국 증시 리뷰

20 일(월)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샘 올트먼 전 오픈 AI CEO 영입 소식 등 기술주 강세, 미국채 20 년물 입찰 호조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영향으로 상승 마감. (다우 +0.58%, S&P500 +0.74%, 나스닥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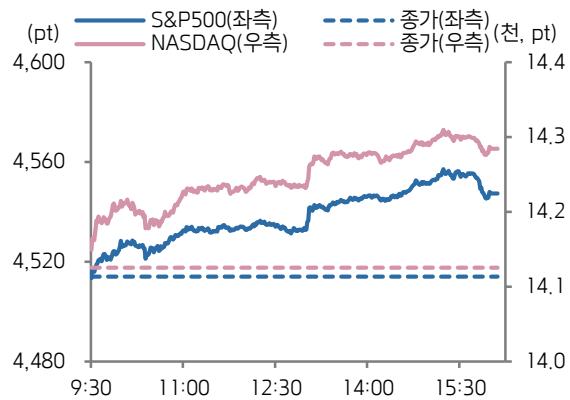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 20 년물 국채는 4.780%에 발행, 응찰률은 2.58 배를 기록하며 20 년물 국채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 이로 인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9bp 하락한 4.42%를 기록, 30년물은 2.7bp 하락한 4.57%를 나타냄. 장기 금리 하락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상승에 기여.

한편, 미국의 10 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전월 대비 0.8% 하락한 103.9 를 기록하며 컨센서스 및 전월치(-0.7%)를 모두 하회. 해당 경기 선행 지표는 19 개월 연속 하락하며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 집계측인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차후에 초과 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 경제의 단기 침체 전망을 언급. 이와 더불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

또한, 중동 산유국 중심의 OPEC 이 추가 감산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유가인 WTI 선물은 2.25% 상승한 배럴당 77.6 달러 기록. 9 월 말 이후 유가는 20% 가까이 하락했고,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다가오는 26 일 회의에서 OPEC 이 추가 감산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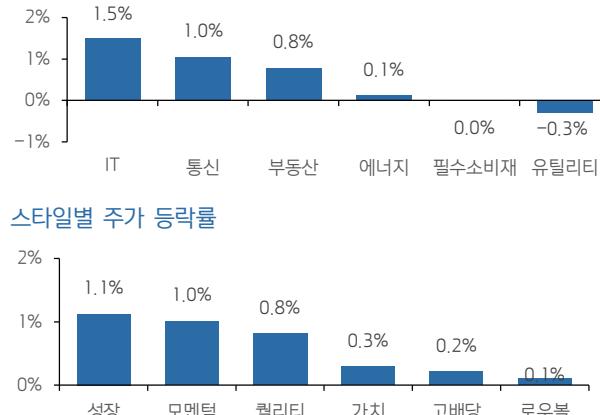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IT(+1.5%), 통신(+1.0%), 부동산(+0.8%) 상승 상위, 유ти리티(-0.3%), 필수소비재(-0.01%), 에너지(+0.1%)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마이크로소프트(+2.05%)는 전 오픈 AI CEO 인 샘 알트먼을 영임하며 새 AI 연구팀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52 주 최고치 경신. 엔비디아(+2.25%)는 21 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호조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마찬가지로 52 주 최고치 경신. 기술주 중심의 강세에 나스닥 100 지수는 1.2% 상승하며 연고점 기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1.20	+0.86%	USD/KRW	1,291.75	-0.37%
코스피 200	334.23	+0.65%	달러 지수	103.49	-0.42%
코스닥	813.08	+1.75%	EUR/USD	1.09	+0.24%
코스닥 150	1,287.66	+2.16%	USD/CNH	7.16	-0.73%
S&P500	4,547.38	+0.74%	USD/JPY	148.42	-0.81%
NASDAQ	14,284.53	+1.13%	채권시장		
다우	35,151.04	+0.58%	국고채 3년	3.659	-2.6bp
VIX	13.41	-2.83%	국고채 10년	3.745	-6bp
러셀 2000	1,807.08	+0.52%	미국 국채 2년	4.917	+3.2bp
필라. 반도체	3,805.81	+1.52%	미국 국채 10년	4.422	-1.4bp
다우 운송	14,982.29	+0.33%	미국 국채 30년	4.572	-1.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42.41	+0.04%	WTI	77.58	+2.03%
MSCI 전세계 지수	685.70	+0.3%	브렌트유	82.03	+1.76%
MSCI DM 지수	2,985.19	+0.41%	금	1999.6	-0.26%
MSCI EM 지수	976.52	-0.58%	은	23.47	-1.6%
MSCI 한국 ETF	63.51	+2.02%	구리	380.75	+1.8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0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7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86.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달러화 약세 및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성
2. AI 관련 호재 발 MS 의 신고가 경신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11 월 수출지표(~20 일) 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주간 등락률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는 4 주 연속 상승, 나스닥은 3 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요국 증시는 11 월 이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중(11 월 코스피 +9.3%, 나스닥 +11.1%).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호전되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산타랠리를 언급하는 것을 놓고 증시 과열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투자심리 지표를 보면 시장 분위기가 아직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일단 10 월말까지만 해도 Extreme Fear(극도의 공포, 0~25pt)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CNN 의 Fear & Greed index 는 11 월 20 일 기준 62pt 를 기록하며, Greed(탐욕 56~75pt, 극도의 탐욕 76~100pt) 영역에 빠르게 진입한 것은 맞음. 하지만 증시의 반전 추세 신호는 Extreme Fear 혹은 Extreme Greed 영역에서 출현했다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이는 지난 한달 간 급등에도, 투자 심리 상으로 주요국 증시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미국 증시의 주가 복원력이 아직 잔존해 있음을 시사. 코스피나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발 수급 혼란으로 여타 지수 대비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띠는 경향은 변하지 않은 만큼 국내 증시의 주가 복원력도 유효하다고 판단

물론 단기간에 빠르게 증시가 회복한 만큼, FOMC 의사록, 엔비디아 실적, 미국 소비시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기 실현 물량 및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전망. 그 과정에서 투자심리는 재차 불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10 월 말 저점 확인 이후 주가 복원력을 확보해온 만큼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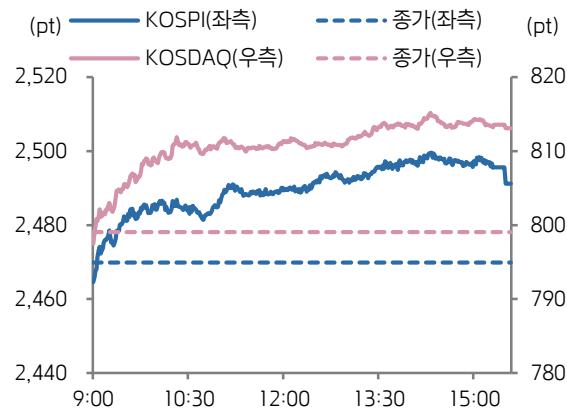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하락, 미국 시장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맥크로 여건 속 에코프로머티(+29.9%) 상한가 효과로 인한 이차전지주 동반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9%, 코스닥 +1.8%)

금일에도 미국 경기선행지수 부진 등으로 인한 달러 및 금리 하락(Bad news is good news), 나스닥 중심의 미국 증시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2.1%)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Chat GPT 개발사 오픈 AI의 공동창업자 샘 알트먼이 해임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한다는 소식으로 AI 사업 강화 기대감이 확대됐다는 점이 주가 강세의 배경이었기에, 국내 증시에서도 AI 관련주들에게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한편, 6 월부터 10 월까지 5 개월 동안 코스피에서만 7.9 조원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11 월 한달동안 2.5 조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주식형 펀드 관점에서도 한국향 자금 유입규모는 11 월 2~8 일(14.0 억달러=환율 1,300 원으로 환산 시 1.8 조원), 11 월 9~15 일(9.2 억달러 = 1.2 조원) 2 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11 월 2~8 일 19.0 억달러, 11 월 9~15 일 25.3 억달러를 기록한 대만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순유입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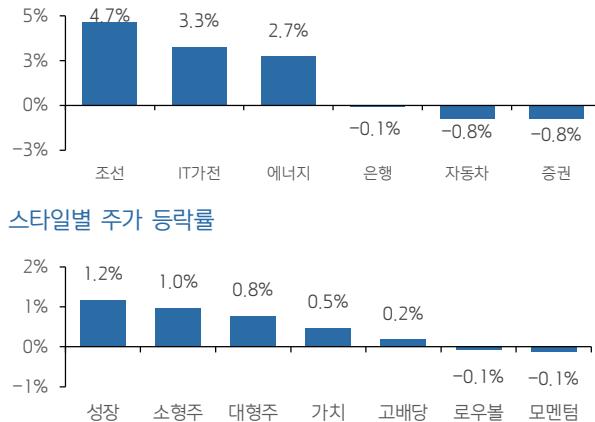
대만 증시와 한국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향 글로벌 자금이 이 두개의 국가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가총액을 고려해보면 한국,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은 업종을 넘어 시장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음. 그와 동시에 공매도 금지와 같은 수급 혼란 요인과 무관하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런 관점에서 주 후반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는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도체 포함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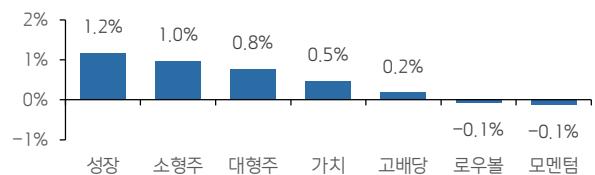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